

# 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

### 진안군, 모든 군민 수혜자 지정...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보장 항목 확대

진안군은 전 군민에게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춘성 군수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모든 군민을 수혜자로 지정하고,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혜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이다.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 해지 처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사고 사망, 후유장해 ▲행소나·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의사 사고 사망 ▲가스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총 20종이다.

올해 변경된 보장내역은 자연재해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이 삭제되고, 신규 항목으로 ▲자전거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내 사고치료비 4개 항목이 추가됐다.

전춘성 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농기계사고·폭발화재 사고, 행소나사고 등 14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1억 5,180만원을 피해 보상을 받는 등 군민들에게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 연장

### 장수군, 농업인 경영 부담 최소화 위해 50% 감면 혜택 6월까지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군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감면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장수군 7개 읍·면에서 농기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임대료 50%를 인하여 총 1만343대 약 1억 500만 원 감면 혜택으로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시켜 영농철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했다.

올해도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농기계 대체와 영농활동을 꼭 필요한 다양한 농기계 구입에 힘쓸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뿐만 아니라 일손이 많이 필요한 영농시기별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농가들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이어서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사기진작과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농업행정을 펼쳐 농가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군, 농업인 실용교육 현황리 진행중

### 28일까지 11개 특화품목 총 10회 교육

무주군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농업인들의 적극 참여 가운데 현황리 진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새해 영농계획 수립,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 경영 및 유통에 대한 교육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은 안성면의 벼·천마 농가를 중심으로 벼 병해충 방제 교육 및 고품질 천마 생산기술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무주군의 중심 품목인 천마에 대한 교육은 외국품종 및 국내품종의 장단점 비교하고, 최근 심각하게 대

두되고 있는 종자문제의 대책인 유성자마 생산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천마 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교육은 이날 28일까지 무주군 특화품목 11개 품목에 대해 총 10회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농민마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용 교육은 관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하고, 방역패스를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농업지원과 강소농육성팀 하현진 팀장은 "농업인들이 특별히 챙겨야 할 병해충 방제, 유통과 생산기술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결국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노하우를 터득하게 돼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강소농육성팀(063-320-2848)에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농업인들의 적극 참여 가운데 현황리 진행중이다.

# 무주군,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무주군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안성면 공진에 위치한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주 대상은 무주군 전입 1년 이내

의 도시민 또는 예비 귀농귀촌인으로 가족수와 연령, 정착 계획, 귀농 교육 이수 시간 등을 종합 평가해 2월중 선정한다.

귀농인의 집 사용료는 월 10만2,300

원이며 상·하수도 및 전기 사용료 등 공공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이용 기한은 6개월로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귀농귀촌팀으로 문의(063-320-2854/2852)하거나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공모 선정

진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8억5,800만원(국비 6억원, 도비 7,700만원, 군비 1억8,060만원)을 투자해 백운면 구 신암분교 일원에 스마트 온실 2개소, 2,400㎡를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 임대를 통해 운영체감과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모사업으로 진안군은 국비 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은 부지 현장점검에서 법·제도적

제약사항, 시설농업 설치 가능성, 정책 협조도 측면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대상지로 선정됐다.

올해 말까지 스마트온실 2개소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 실습 임대인을 모집해 최대 3년까지 농장운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영농기반을 다질 수 있을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유입을 통해 우리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 중인 딸기와 토마토 재배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자 모집

진안군은 올해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1인당 최대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 6000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지난 해(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소평몰(www.ecoemall.com) 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증본,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제출해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55명으로 선착

순 마감된다. 지원 대상자는 중복 수혜 여부(영양플러스사업)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알림 문자를 임산부 고유번호와 함께 발송하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소평몰에 해당 고유번호를 입력해 회원 가입 후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면 된다.

월 최대 4회(연 16회) 구매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 이상 최대 1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고, 회원 가입 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노후 공동주택 정비 지원사업 추진

장수군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정 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 등 유지보수,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 지붕 및 담장보수, 외부도색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단년도 전체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억 8,000만 원을 지원해 19개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올해는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2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읍·면에 2월 1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원단지 선정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 장수소방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블랙아이스 주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지)는 13일, 최근 급격한 기온저하로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아침 시간대에 터널 출입구나 다리 위의 도로에서 자주 발견된다. 눈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다리 위나 호숫가 주변의 도로, 또는 그늘이 져 있는 커브 길과 같이 기온의 차이가 큰 곳에서 생기기 쉽다. 특히 제설 작업을 위해 도로 위에 뿌린 염화칼슘이 눈과 결합하게 되면, 도로 위에 남아있던 수분이 도로 표면을 더욱 미끄럽게 하기 때문에 블랙아이스 현상이 찾아진다.

블랙아이스가 깔린 도로의 제동거리는 일반 도로 노면의 14배, 눈길보다 약 6배 이상 증가해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고판호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